

유일하게 남은 정부 건립 지방 관광호텔

문화재 776호 등록된 옛 무등산 관광호텔

61년 된 서구식 목조건축 역사적 가치
1970년대까지 신혼여행지로 각광
5·18때 전남대생 피난처 사용도
현재 원효사 소유... "힐링공간 활용을"



국내 명승지에 건립한 관광호텔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옛 무등산 관광호텔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임시 피난처로 사용돼,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



1962년도에 찍은 본관(왼쪽)과 현재 별관의 모습.



(원효사 제공)

봄날의 무등산은 싱그럽다. 군데군데 피어난 철쭉과 개나리가 푸른빛과 어울려 조화를 이룬다. 사계절 언제 가도 무등의 품은 아름답고 아늑하지만 봄꽃이 다부듯 피어나는 이 계절 또한 어느 때 비할 바 아니다. 초록의 숲이 주는 상쾌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

그 건물은 그곳에 있었다. 시간의 흐름을 그리안은 채 무등의 품에 안겨 있었다. 원효계곡의 상봉 아래 자리한 옛 무등산 관광호텔(북구 금곡동 산 3-1). 1959년에 지어졌으니 올해로 만 6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옛 무등산 관광호텔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중앙정부에서 처음 건립한 지방 관광호텔이다. 서구식 목조건축 기법에 전통의장을 가미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계곡을 따라 맑은 물소리가 연신 들려오고, 다소 굽은 소나무들의 자태에선 풍상을 이겨낸 기품마저 느껴진다.

최근 옛 무등산 관광호텔이 국가등록문화재(제776호)로 등록돼 눈길을 끈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단이 피신해 시민군 및 학생들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도모한 곳이다. 황석영·이재의·전용호가 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나온다.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시국이 안정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들이 모두 계엄 당국에 연행되었다고 서울로부터 전남대 총학생회로 연락이 와서 다급히 무등산장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이때 피신한 인물로는 박관현(1982년 옥중단식투쟁으로 사망), 양강섭 등이 있다."

이처럼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곳이라는 장소성을 내재하고 있지만 일반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올해가 5·18 4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지만, 오월 관련 소중한 유적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느낌도 없지 않다. 이곳은 원효사에서 약 1km 떨어져 있는 산 속에 자리한 터라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편이다. 간혹 산행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곳이 옛 호텔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당시 교통부는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호텔 지일 및 인수 등을 추진했다. 대구, 무등산, 서귀포, 설악산 등에 지방호텔을 신축했는데, 옛 무등산관광호텔은

광주시에 위탁경영을 맡겼다. 현존하는 곳은 무등산호텔이 유일하다. 비교적 교통이 용이한 설악산이나 서귀포는 이후 개발로 사라졌지만 무등산의 경우는 이용객 감소로 큰 훼손 없이 현존할 수 있었다.

호텔이 있는 원효계곡은 원효사에 속한 사찰림으로, 예로부터 광주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피서지였다. 당시 교통부는 원효계곡 일대 0.16km를 관광지로 지정했고 불교 종무원의 토지대여와 문교부장관 사용 승인을 얻어 건립하게 됐다. 규모는 10개의 객실과 연회장, 식당 등 부대시설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본관 1층, 별관 2동이 남아 있다. 건립될 당시 명칭은 '무등산장'이었다고 한다. 이후 한국관광공사에서 거쳐 1966년 옛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김남중대표가 인수해 시설을 개선했다.

원효사가 등록문화재 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등산 산장호텔은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 신혼여행지 등으로 각광을 받았다. 주변 식당들도 신혼

여행 피로연 장소로 인기를 얻었으며 계모임, 송년회 등의 장소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경영난에 빠지게 되고 1999년 원효사에 운영권이 양도됐다. 이후 2012년 무등산관광문화회회가 창립돼 이곳이 숲 문화학교로 탈바꿈하게 된다.

원효사는 향후 이곳의 활용 및 복원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관할 구청 관계자 등과도 정비 및 계획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효사 일대 상가들은 오는 2021년까지 호수 공원 쪽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원효사와 옛 무등산관광호텔만 남게 되기 때문에 숲의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다.

해정 원효사 주지는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는 데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5·18의 역사적 가치가 투영된 옛 무등산 관광호텔을 이것과 연계해 스토리텔링, 생태 문화학교 등 시민을 위한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갈한 시어와 서정적 울림의 조화

김규성 시인 '시간에는...' 펴내

영광 출신 김규성 시인이 세 번째 시집 '시간에는 나사가 있다'(달아살)를 펴냈다.

시인은 현재 담양 대덕면에 '세설원'(洗舌園)이라는 집을 짓고 창작을 하고 있다. '거짓된 혀를 씻는다'는 의미처럼, 그 집에 가면 거짓된 언어가 모두 씻김을 당할 것 같다. 아마도 글과 말을 다루는 이들은 모든 예외 없이 여기에 해당할지 모른다. 한편으로 이곳에 묻혀 글을 쓰면 거짓과 위악의 언어들은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질 것도 같다.

이번 시집에는 모두 5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분신화육', '빈집', '나사', '시의 행간', '한밤의 술' 등의 시가 주는 서정적 울림과 깊은 맛은 시인의 오랜 창작 내용을 엿보는 듯하다.

"나사를 조인다/ 나를 조인다/ 너에게로 가는 길을 조인다/ 평지일수록 가파른/ 너와 나의 등고선/ 나사를 조이는 것은/ 벼랑 끝에서 외출처럼/ 너를 껴안는 것/ 꼭 안은 채로/ 너를 쫓아만 보는 것/ 오늘도/ 천지의 나사를 조인 후/ 새로바먼저 일어나/ 해를 맞는다"



표제시 '시간에는 나사가 있다'는 오지의 수행처에서 절타막마하는 시인의 모습이 드러난다. "너에게로 가는 길"을 위해 스스로

조이며 "새보다 먼저 일어나"는 화자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다. 비록 "나사를 조이는 것은 벼랑 끝에서 외출처럼" 다가올 지라도 이를 행하는 이의 모습은 수행자의 그것과 다름없다.

이화경 소설가는 해설에서 "흠잡을 데 없는 기품을 지닌 선비 같은 분위기에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품으로 보이는 시인은 왜 그토록 어떤 기원에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는 걸까. 그에게 기원은 '꿈' 혹은 '꿈'의 다른 말이기도 한 듯하다"고 평한다.

한편 김규성 시인은 2000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 '신이 놓친 약보'와 산문집 '산내민들레', 수상집 '땀'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여성가족재단 '사람책을 만나다' 참가자 모집

전남여성가족재단이 다양한 주제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다루는 여성인문아카데미 '사람책을 만나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여성인문아카데미 '사람책을 만나다'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전남여성가족재단 '북카페혜음'에서 진행되며 책 대신 사람을 빌려 인생 이야기를 듣는 유럽의 리빙 라이브러리에 착안해 기획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각 주제별 사유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책의 생각을 듣고 도민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블로그,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통해 사람책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질문 등을 사전에 취합해 토크 콘서트에 활용 계획이다.

5월12일 1회차에는 강선아 우리원 농장대표가 '귀농을 꿈꾸는 모든 청년들에게'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이어서 문승현 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6월10일·4차 산업혁명과 젠더),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6월16일·잘 살고 싶다면 에코페미니즘1),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교수(7월7일·남성이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이들은 환경,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주제를 여성주의 시각에서 다루며 편견과 선입견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전은재 기자 ejf621@kwangju.co.kr

국립국어원 '언택트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로

'언택트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로, '유니크 메뉴'는 '이색 지역 명소'로.

국립국어원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이뤄지는 서비스를 뜻하는 '언택트 서비스'를 대체할 쉬운 말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정했다. 특히 '언택트'(비대면)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언택트 소비'(비대면 소비), '언택트 방식'(비대면 방식), '언택트 채용'(비대면 채용) 등이 그 예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나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유니크 메뉴'는 '이색 지역 명소'로 선정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월호 6주기... 제주서 음악으로 심는 '봄꽃'

'최소우주' 뮤지션들 유튜브 공연

세월호 참사 6주기, 세월호의 목격지였던 제주에서 참사를 기억하고 음악으로 위로하기 위한 온라인 공연이 열린다. 싱어송라이터 조동희와 밴드 사우스카

니발 등 레이블 '최소우주' 소속 뮤지션들이 16일 유튜브 라이브 공연 '봄꽃'을 연다.

세월호가 향하려던 제주도에 자리한 사우스카니발 스튜디오에서 오후 4시 16분부터 공연을 시작한다. 공연은 최소우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조동희는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발표한 추모곡 '작은 리본'과 2주기에 낸 '너의 가방', tvN 드라마 '시그널'의 OST(오리 지널사운드트랙)였던 '행복한 사람' 등을 부르며 제주 출신 밴드 '섬 음악' 정서를 노래하는 사우스카니발은 다음 달 29일 발매될 EP(미니음반) 수록곡들을 공연한다. 선공개곡 '그것은 사랑'도 조동희

와 함께 부른다.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는 영상으로 '섬 집어기' 기타 연주를 들려주며 신인 뮤지션 서로도 영상으로 공연에 함께한다. 최소우주는 고(故) 조동진이 이끈 1990년대 음악공동체 하나음악과 2000년대 푸른곰팡이로 이어진 작곡가들의 음악 집단을 계승하는 레이블로, 조동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퀵 타로카드</p> <p>지하철 금남로57역 4번출구(신한은행) 공한,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p> <p>타로마스터 ☎ 010-3640-6429</p>	<p>금성가설재</p> <p>나주시 영강길43 (대덕아파트) 건축, 자재 임대·매입, 신용분위</p> <p>☎ 061)333-0708, 010-2216-8938</p>	<p>만福당</p> <p>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p> <p>☎ 062)959-0680, 010-4602-0680</p>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영일)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한, 택일, 개인지도함.</p> <p>☎ 062)224-7687, 010-2611-7687</p>
<p>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배달가능 직접전화및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p> <p>☎ 062)526-5475, 010-8621-5959</p>	<p>남문냉동</p> <p>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p> <p>☎ 061)333-2779, 010-3610-2779</p>	<p>무크 광주세정점</p> <p>서구 상무대로 773, 세경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 불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p> <p>☎ 062)370-9258</p>	<p>한성꽃화원</p> <p>나주시 나주로71 (송월동 LG화학)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전국배달</p> <p>☎ 061)334-3200, 010-3623-6921</p>
<p>김동일쉐프</p> <p>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입구마트)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p> <p>☎ 062)228-1975, 010-9622-8938</p>	<p>우리뷔페</p>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정성과세로운맛으로 보듬어줍니다. (회사·단체 강부환영)</p> <p>☎ 062)381-0066, 010-3085-0140</p>	<p>개성전통한방삼계탕</p> <p>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p> <p>☎ 062)383-3454, 010-2106-0424</p>	<p>천상일월태주명</p> <p>나주시 남의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중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p> <p>☎ 010-2617-3635</p>
<p>광명천막기업</p> <p>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p> <p>☎ 062)526-6153, 010-6646-7282</p>	<p>유가네한우곰탕 광주대인점</p> <p>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곰탕의맛! 한우맑은곰탕,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p> <p>☎ 062)464-1425</p>	<p>연아불교용품</p> <p>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 (영산포구역전)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 양초 판매</p> <p>☎ 061)334-0088</p>	<p>남악장례식장</p> <p>전남 무안군 심향읍 남악로 250번길 59-30 시그나티오양방원 1층 최신시설완비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업자제공</p> <p>☎ 061)285-0444</p>
<p>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p> <p>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p> <p>☎ 061)337-7712, 010-5288-3257</p>	<p>박당화랑</p> <p>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한승 ☎ 062)222-6866</p>		